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

안 체 윤¹⁾

오 미 경²⁾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모든 지능의 작용에서 기본이 되고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하는 동인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성찰지능은 다중지능의 일부 문항으로만 논의되어져 왔기에 단일한 척도로서 자기성찰지능을 측정하기에 미흡하며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척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은 20대~60대 성인 805명이었다. 연구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하위 요인, 총 36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척도의 요인구조의 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준거관련타당도로 확인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신뢰로운 측정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반성하며 나아가 자기를 설계해나가며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자기성찰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 척도, 척도 개발

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뇌교육학과, 조교수 (E-mail : mkoh82@ube.ac.kr)

I. 서론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성찰능력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 욕구, 능력에 대해 이해하며 그것들을 잘 다루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합해 개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이러한 능력을 Gardner(2001)는 자기성찰능력이라고 하였고 지능의 한 영역으로 범주화 시켰다. 이러한 자기성찰지능은 개인에 대해 정확한 정신적인 모델을 형성하고 삶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는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성찰지능을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자기성찰지능 척도와 자기성찰 척도로 나눌 수 있고 연구대상에 따라 초등학교생용(권오정, 2008a; 이연수, 2011), 중학생용(김홍주, 2012), 성인용(황주연, 2011)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먼저 권오정(2008a)은 다중지능 중 하나의 독립된 지능으로서 기존의 자기성찰지능을 보완하여 초등학교생용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개발하였고 하위요인은 자기이해(능력정서인식, 정서활용), 자기조절(판단력, 충동통제), 자기설계(목표설정, 성취지향)로 구성하였다. 또 다른 초등학교생용으로 이연수(2011)가 만든 자

기성찰 척도는 철학·윤리·도덕적 관점에서의 성찰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그 하위요인은 반성적 성찰, 실존적 성찰, 탐구적 성찰, 대화적 성찰, 공감적 성찰로 이루어져있다.

중학생용 자기성찰 척도(김홍주, 2012)는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자기성찰을 자기수양과정으로 보았으며, 하위요인을 마음의 자각, 부끄러움 의식, 자기반성, 몸의 수렴, 자기개선으로 구성되었다. 유일한 성인용 자기성찰 척도로 황주연(2011)은 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기에 초점을 둔 성찰과 타인이나 관계에 초점을 둔 성찰을 고려하여 성인용 자기성찰 척도개발을 하였으며, 구성된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탐색, 타인탐색, 자기이해, 타인이해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성찰을 지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독립된 심리적 특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척도구성 하위요인이나 문항의 내용이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Gardner(2007)의 다중지능 중 하나인 자아성찰지능을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동인으로서 독립된 지능으로 보고,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자기성찰지능 관련 연구들은 다중지능 측정의 일부 문항으로만 논의되어져 왔고 다중지능의 하위검사로써는 문항수가 너무 적고 각 문항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단일한 척도로서 자기성찰지능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자기성찰 및 자기성찰지능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김혜은, 2009)하다. 더욱이 기존의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찰지능 척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황주연(2011)의 연구는 자아성찰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탐색 및 이해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자아성찰 및 지능이 삶의 목적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과 관련된다고 볼 때, 삶을 조절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된 새로운 성인용 자아성찰지능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자아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일은 성인의 자기관리나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성찰 능력의 부재는 성인 자기에 대한 성찰의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성인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등 전반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는 문화적 변화에 따라 명상과 같은 자기성찰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아성찰과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인의 자아성찰지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는 실정으로 도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타당성 있는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인용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성찰지능의 개념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존중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로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을 들 수가 있다. 그가 제안한 8가지 지능 중에서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모든 지능의 작용에서 기본이 되면서 다른 지능이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능 중의 지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기성찰지능은 개인의 발달과 더불어 생애전반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며(권오정, 2008a), 다른 지능이 특정분야와 영역에서 사용되는 반면에 자기성찰지능은 우리가 개인을 평가할 때 분야에 상관없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Ciarrochi, Forgas, & Mayer, 2005)고 하여 자기성찰지능은 특정한 지능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특성임을 언급하였다.

특히, 삶의 목적인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능의 영역들이 갖는 특성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 특성을 통합하고 통찰하고 삶의 목적에 맞게 조절하고 미래를 설계

표 1.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연구자	정의
Gardner(2001)	·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 능력이다. ·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하는 데 활용하는 능력과 자기 자신의 강점, 욕구, 능력에 관한 지식이다.
Covey(2002)	·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도덕적이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성찰의 능력이다.
Shearer(2002)	· 자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며 개인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2003)	·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다.
강정순(2007)	· 자신의 내적 측면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변별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의와 자신과의 문제를 조절해 내는 능력이다
이지현(2011)	·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 두려움, 재능 등을 잘 다루어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잠재력이다.

하는 실행적인 역할을 하는 지능은 다른 지능들에 비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Gardner(2001)는 다중지능의 핵심 요소를 발표하면서 자기성찰지능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정의들은 학자들마다 각기 다양한데, 이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이와 같은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을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대한 이해와 조절 및 활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기설계를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 고찰

자기성찰지능은 Gardner(1993)가 다중지능의 하나로서 독립된 지능으로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그 지능에 대한 요소를 분명히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권오정, 2008b),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먼저, Gardner(1983)는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소를 자신의 감정 인식, 감정 조절, 감정 활용, 자신의 강점, 능력, 필요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보았고, Shearer가 2002년에 개발한 다중지능발달평가 척도(MIDAS)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요소를 자신 알기, 목표 인식, 감정조절, 행동조절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김양분(2000)은 다중지능발달평가척도에서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을 자아

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하기, 자신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사고와 기분을 반성하고 조정하며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종진(2001)은 정서·기분, 자기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 성찰·메타인지, 자기효능, 목표설정, 가치·신념을 들었다. 다음으로 문용린(2004)은 자기성찰지능을 감성인식, 능력인식, 미래계획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 하였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 능력 등을 포함 한다고 하였다. 강정순(2007)은 자기성찰지능은 내적 측면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변별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의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권오정(2008b)은 자기성찰지능을 자기이해, 자기조절, 자기설계의 3영역으로 나누고 자기이해 영역은 능력 및 정서 인식과

정서활용 요인으로, 자기조절 영역은 판단력과 충동통제 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설계 영역은 목표설정과 성취지향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문헌이나 척도에서 나타난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위에서 논의된 자기성찰지능 구성요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자기성찰을 하나의 지능으로 보는가 또는 단순한 하나의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보는가에 따라 하위요소 구성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성찰을 지능으로 보는 경우 문제해결능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은 개인이 그 목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상황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기성찰지능은 감정 및 능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조절하고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목표설계 및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연구들은 같은 시

표 2. 문헌과 측정도구에서 추출한 자기성찰지능 구성요인*

	감성 인식	능력 인식	감성 조절	감성 활용	메타 인지	성취 지향	상황 판단력	충동 통제	자아 효능감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목표 설정 (미래 설계)	가치, 신념	자기 반성
Gardner (2001)	◆	◆	◆	◆								◆		
Shearer (2002)	◆	◆	◆	◆	◆							◆		
Anthony, Frankli, & Langford (2002)	◆				◆		◆							◆
김양분 (2000)	◆	◆	◆	◆	◆						◆	◆		
정종진 (2001)	◆	◆			◆				◆	◆		◆	◆	
문용린 등 (2003)	◆	◆	◆	◆								◆		
권오정 (2008a)	◆	◆		◆		◆	◆	◆				◆		

* 표 2는 권오정(2008a)이 초등학생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문헌과 측정도구에서 추출한 자기성찰지능 요인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논문을 더 추가해서 작성한 것이다.

표 3. 가정 모형의 정의

구성요인 (8요인)	정의
정서 및 능력 인식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는 능력
메타인지	자기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자각 능력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
목표설정	미래를 위한 목표설정 능력
정서조절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해내는 능력
정서활용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행동통제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자기반성	자기 자신의 행위 또는 내면에 대한 성찰 및 반성 능력

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의 하위 요인을 정서 및 능력인식, 메타인지, 삶의 의미와 목적, 목표설정, 정서조절, 정서활용, 행동통제, 자기반성을 포함한 8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3. 자기성찰지능 구성요인의 개념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위의 표 3과 같이 정서 및 능력 인식, 메타인지, 자기반성, 정서 조절, 정서 활용, 행동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 목표설정의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정서 및 능력 인식

자기이해는 자기성찰지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중요한 요인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

점에 대한 각성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이해에 대해 Armstrong(1994)은 자신의 감정에 접근하고 자신의 정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으며 Shearer(1995)는 감성인식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효능감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것을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의식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Gardner(2001)는 자기성찰지능에서 자신의 능력인식 영역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력과 능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계발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Gardner(2004)는 자기성찰지능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단순히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건강한 행동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정서 인식을 기반으로 정서활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 자기이해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용린 등(2003)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강점 및 단점 등에 대한 객관적 이해

와 함께 상황에 따른 감정, 성질, 욕구, 의도 등의 모든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최근 다중지능 척도 중에서 자기성찰지능의 감성인식영역을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감정의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한희명(2011) 또한, 자기이해가 단순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적인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결국, 자기이해는 자기성찰의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 자신의 능력과 정서에 대한 이해와 자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서의 효율성 또는 기능성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보통 ‘인지에 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 ‘인지에 대한 반성’,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라고 정의된다. 메타인지의 개념은 용어의 출현 이전에 이미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그 핵심적 특성이 인지되었다. Spearman(1923)의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의 Plato에 의해 메타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천명되었으며, Aristoteles역시 행동적으로 보고 듣는 행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하는 독립적인 힘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이 그러한 원리를 확장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인 Locke(1924)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자각(perception), 혹은 정신이 택한 조작(operation)을 ‘반성(reflection)’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Dewey(1933)는 마음으로 대상을 돌려 보고, 그것에 대해 세심하게 그려보고, 연속적으로 고려해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는 사고 유형을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로 정의하였으며, Piaget(1976)는 지식의 추출, 인식, 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반영적 추상화(reflection abstraction)’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김 옹희, 윤주환, 2000). 이처럼 자신의 사고과정이나 지식을 시험해 보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는데 이용되었던, 즉 메타수준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다. ‘meta’라는 접두사는 ‘변화’, ‘이후(after)’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어휘이다. ‘meta’라는 접두사가 쓰이는 용어들 중에는 메타기억, 메타이해, 메타집중, 메타의사교환, 메타언어, 메타인지 등이 있어 메타와 관련된 개념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억, 이해, 집중, 의사교환, 언어 등은 인지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용어들 중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학자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Flavell이었다. 그는 처음에 학습자의 암기 수행상의 결함을 설명하면서 ‘암기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인 메타기억(meta memor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후에 보다 광범위한 ‘인지 현상 전반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를 ‘메타인지적 지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반면 Brown은 메타인지를 ‘인지에 대한 지식’과 ‘인지에 대한 조절’로 구분하고, ‘인지에

대한 조절'의 영역에서는 감시, 자기 조절, 실행 제어, 계획, 점검 등과 같은 역동적인 메타인지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편, Schoenfeld의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메타인지를 '사고 과정에 대한 지식', '제어와 자기 조절', '신념과 직관'의 세 범주로 나누고 있다(양혜주, 2007).

이렇게 메타인지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나 메타인지를 자기성찰지능의 하나로 보는 이유는 메타인지가 자신에 대한 이해, 탐색, 조절, 계획, 점검, 실행 등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자아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은 때때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의 성인들에게 자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재인식하게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기실현을 이룬 사람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간 기본적 가치와 희망을 갖게 된다(Beck, 1967; Frankl, 1978; Maslow, 1971; May, 1975; Seligman, 1990)는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맞는 자기설계, 미래설계는 자기성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목표설정

자기성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아실현이라고 볼 때, 자아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자기설계는 자기성찰의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에 Shearer(1995)는 MIDAS에서 '미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정종진(2001)은 자기성찰지능 사정에서 하위 구성요인으로 목표설정을 들었으며 이는 이후 문용린, 류숙희, 김현진 및 김성봉(2001)이 제안한 자기성찰지능 구성요인 중 미래계획 요인으로 구체화되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완전성을 향해 성숙해나가는 존재이므로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성숙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이 중요한데(Rogers, 1951), 이런 측면에서 자기설계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서, 능력, 환경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행동적인 과정과 이를 토대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가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자기성찰에서 목표로의 지향이며 자아실현을 위한 자기설계가 지니는 의미(권오정, 2008b)이며, 자기성찰지능의 최종적인 목표를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한희명, 2011)이다.

건강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인은 개인이 달성해야 할 대상을 스스로 개발하고 공식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권오정, 2008b), 이러한 자기설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때 개인은 스스로를 가치롭게 여기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정서조절

기존의 지능의 개념이 지적인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정서적인 부분과 수행을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한 반향으로서 제시된 Gardner의 다중이론은 인간의 인지는 단지 인지적인 부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자기 조절 및 활용은 정서 및 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하나의 지능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하여 Shearer(1995)는 감성조절 능력을 자신의 사고와 기분 및 행동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자아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Gardner(2001)는 자기조절능력을 감성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데 활용하는 것과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 그리고 재능을 다루는 감성조절능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김양분(2000)은 자기조절은 자신의 사고와 기분을 반성하고 조정하며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문용린 등(2001)은 자기조절에 대해 감성인식 영역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감성의 적절한 조절력을 강조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감정, 동기, 인지 등의 영역에서 두루 기능하고 있는 고차적인 정신능력을 말하며 이 과정은 자신의 현재 감정 인지, 동기 등에 대해 깨닫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 상태를 자신이 바라는 목표 상태로 옮기려는 노력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윤영신, 2007). 즉, 자기조절은 자신의 반응 및 행위를 통제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을 뜻하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인식하게 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조절을 위한 하위요인으로 메타인지 및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이는 자기 조절능력의 지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기능적인 능력으로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역시 자기 조절에 필요하다(권오정, 2008b).

자기조절능력이란 환경의 요구에 맞게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지현, 2011)이다. 즉,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감시 없이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행동을 생성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동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및 자기관리의 능력들도 자기조절 능력에 포함된다.

정서활용

정서의 활용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서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 영역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적응시키는 능력과 관련되며 창의적 사고와 주의집중의 전환 등의 문제해결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Mayer, DiPaolo, & Salovey, 1990)을 말한다.

종합하여 자기 조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자기조절 능력이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행동 수행적 측면이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일치된 함의를 보이고 있다.

행동통제

행동통제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이론적 접근에서 처음으로 자기통제에 대한 용어를 쓴 Skinner(1953)는 조작적 조건화의 원칙에서 자기통제에 접근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기통제 self-control’란 유기체가 변인을 조작함으로써 반응의 가능성을 조작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간주하였다. 즉 ‘통제란 행동이 기능이 되는 변인을 조작하고자 할 때에만 나타나며 이러한 통제는 유기체의 내부적인 힘보다 외부의 변인들에 의해 조작되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Kopp(1982)와 Baumeister, Heatherton 및 Tice(1994)에 따르면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보다 발달된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통제는 외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순응하는 수준인 반면에 자기조절은 외부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내적인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고등정신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조절은 자기통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변화를 위한 적응력까지 고려하는 자기통제의 좀 더 성숙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아성찰지능의 한 요인으로서 행동통제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신을 잘 조절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 및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자기반성

자기반성이란 바른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지, 잘못이 없는지, 부족한 점이 없는지 돌아보는 행위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또한 김홍주(2012)도 자기성찰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반성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정의하였다.

결국 자기반성이란 지나간 자신의 경험들을 뒤 돌아 보고 반성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뉘우침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성도 함께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본 조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표집이 되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자 403명(50.8%), 여자 391명(49.2%)이고 연령 기준으로는 20대 202명(25.1%), 30대 188명(23.4%), 40대 210명(26.1%), 50대 이상 205명(25.4%)로 이루어졌다. 전체 811명 중 응답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한 가지 반응만 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805명의 자료를 표 4와 같이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척도개발절차

1차 예비문항 제작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표 4.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403	50.1
	여자	391	48.6
	결측치	11	1.4
연령	20대	202	25.1
	30대	188	23.4
	40대	210	26.1
	50대 이상	205	25.4
결혼여부	미혼	222	27.6
	결혼	552	68.6
	이혼	15	1.9
	별거	6	0.7
	사혼	7	0.9
	기타	3	0.4
최종학력	고졸이상	164	20.4
	대학교재학	155	19.3
	학사	345	42.9
	석사	99	12.3
	박사	14	1.7
	응답거절	28	3.5
연간 총수입	수입이 없음	145	18.0
	1,000만원 미만	66	8.2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15	14.3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21	15.0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20	14.9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72	9.0
	5,000만원 이상	165	20.5

정의 및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척도를 분석하여 얻은 자기성찰지능 8요인에 대한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정서 및 능력 인식 요인에서는 Shearer(1995)가 HAPI를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다중지능 검사(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s)를 번역한 K-MIDAS(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9문항, Mayer 등(1990)의 감정지각질문과 Goleman(1996)의 EQ 검사를 기초로 문용린(1997)이 개발한 ‘정서지능진단검사’ 중 정서인식능력 8문항을 참고하였다.

메타인지 요인에서는 양혜주(2007)의 ‘사전 메타인지도구’ 40문항과 이은주(2010)의 ‘영역 독립 메타인지도구’ 18문항 그리고 O'neil과 Abedi(1996)의 ‘메타인지도구’에서 20문항을 참고하였다.

삶의 의미와 목적 요인에서는 박정미(2003)가 만든 ‘자기생활 관리능력검사’ 25문항과 Elliot(2001)의 ‘성취목표검사’(Achievement Goal Questionnaire) 12문항, 이경열, 김정희 및 김동원(2003)의 ‘영성지능척도’ 중 삶의 의미와 목적 5문항 그리고 하태민(200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에서 삶의 목적 10문항을 참고하였다.

목표설정 요인에서는 신용국, 김명소 및 한영석(2009)의 ‘셀프리더십 척도’ 중 자기목표설정 5문항, 권오정(2008b)의 ‘자기성찰지능척도(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중 목표설정 요인 7문항에서 참고하였다.

정서조절 요인에서는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SCRS(Self-control Rating Scale)를 김문신(2003)이 재구성한 ‘자기조절능력척도’ 33문항과 문용린(1997)이 개발한 ‘정서지능진단검사’ 중 정서조절능력 7문항을 참고하였다.

정서활용 요인에서는 권오정(2008b)의 ‘자기성찰지능척도(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중 정서활용 요인 4문항, 문용린(1997)이 개발한 ‘정서지능진단검사’ 중 정서활용능력 요인 10문항을 참고하였다.

행동통제 요인에서는 권오정(2008b)의 자기성찰지능척도(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중 충동통제 요인 6문항, 김문신(2003)의 ‘자기조절능력척도’ 33문항을 참고하였다.

자기반성 요인에서는 이연수(2011)의 ‘초등학생용 자기성찰 척도(SRS)’ 중 자기반성 요인 5문항, 김홍주(2012)의 ‘중학생용 자기성찰 척도’ 중 반성적 성찰 요인 21문항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자아성찰지능의 각 하위요인에서 참고한 척도의 문항들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보완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였다.

개방형 질문지 조사

개방형 질문지 조사는 성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성찰의 개념 및 구성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 및 예비문항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20대~60대 남녀 157명이었고, 질문지는 2012년 5월 한 달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개방형 질문지의 평정 절차는 자기성찰의 개념 및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지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거나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게 하였다.

질문지의 응답내용에서 자기성찰과 관련된 개념들을 도출해내고 도출된 개념들을 분석단위로 정해 빈도수를 파악한 후 의미 있는 개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개념들이 연구자가 가정한 이론적 틀의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에 따라 문항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하위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논의

표 5. 자기성찰지능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 문항

구분
‘자아성찰지능’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성찰지능’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순서대로 세 가지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자아성찰지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어떤 상황에서 ‘자아성찰지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와 가장 가까운 타인은(예를 들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등) 어떤 상황에서 ‘자아성찰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성찰지능’이 언제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개방형 질문지 분석 결과 자기반성,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목표 설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밖에 정서 및 능력 인식, 메타인지, 정서활용, 행동통제가 있었으며, 빈도수가 적은 하위요인은 제외하였다. 성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성찰은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행동과 감

정에 대해 스스로를 조절해가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가정한 자기성찰의 이론적 모형 8요인에 많은 부분이 일치되었다.

예비문항 선정

기존의 자기성찰 관련 척도와 개방형 질문

표 6. 자기성찰지능에 관한 개방형 질문지 응답내용

구분	응답내용
자기반성	· 스스로 돌이켜 보고 반성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노력한다. ·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좌표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곤 한다.
삶의 의미와 목적	·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위해 노력한다. ·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자기이해	· 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편이다. · 갑자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
자기조절	·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다. · 나는 화가 날 때 가라 앉히기 위해 잠시 멈추고 나의 내면에 집중한다.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제력이다.
목표설정	· 지금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을 때 목표를 세우는 편이다. · 나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지의 응답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기성찰지능을 정서 및 능력인식, 메타인지, 자기반성, 정서 조절, 정서활용, 행동통제, 삶의 의미와 목적, 목표설정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은 83문항으로 제작하였고 발달심리학 박사 3인(성인발달심리학 전공)과 자기성찰 향상 프로그램과 현장 적용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항목은 1) 자기성찰 구성개념과의 부합도, 2) 문항 내용이 설문 대상자들에게 이해되는 정도, 3) 하위요인의 자기성찰 개념에 대한 부합도 세 가지 항목이었다. 평정결과 이해되기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문항을 수정하였고 부적절한 문항 13문항이 제거되어 총 70문항으로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시행

예비문항 선정과정을 통해 선정된 70문항이 예비조사 척도로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제작되었다. 154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항양호도를 포함한 문항분석 및 예비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을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값은 .847로 일반적인 기준치인 .80이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7200.400$, $p<.001$ 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요인수를 지정하지 않고,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보다 큰 요인은 14개였다. 다음은 연구자

가 이론적으로 가정한 자기성찰의 구성요인이 8요인이었기 때문에 8요인으로 고정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능력인식 및 메타인지가 하나의 요인으로 합쳐졌고, 삶의 의미와 목적 및 목표설정이 하나로 합쳐졌으며 행동통제는 2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자기반성,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인식은 각각의 개별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본조사 시행

본조사를 위해 예비조사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된 6문항을 제외하고,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2개의 역문항을 수정하여 총 64개 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개발된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먼저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KMO의 표본적절성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를 구하여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고, 요인회전 방식으로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 방법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적합한

하위 요인 수는 고유치(eigen value), 스크리 검사(scree test), 요인공동분산율의 기준에 의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구성된 요인 수에 대한 요인의 명칭과 소속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척도의 요인구조의 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유사 척도와 요인 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PASW 18.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1차 문항축소

문항분석을 위해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문항을 제거하여 문항을 축소하였다. 문항 제거의 기준은 평균이 2미만이거나 4초과¹⁾, 표준편차가 1미만²⁾, 다변량 정상성을 근거로 왜도와 첨도가 ± 2 이하³⁾,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수가 .30이하⁴⁾인 문항으로 삼아

- 1) 평균이 2미만 이거나 4를 초과하면 연구 대상자들의 능력과 상관없거나 또는 기대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없다(박광배, 1999).
- 2) 표준편차 1이하인 경우는 문항의 편포가 없어 변별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김성완, 2003).
- 3) 왜도의 절대 값이 2보다 작거나 첨도의 절대 값이 7보다 작은 경우 정규성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다(김정화, 2010; West, Finch, & Curran, 1995).

1차적으로 문항 제거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제거된 문항은 없었다.

2. 타당화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준거 모형과 요인분석의 결과가 일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상관행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KMO (Kaiser-Meyer-Olkin) test와 Bartlett's sphericity test를 시행하였다.

표 8과 같이 KMO값⁵⁾이 .965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치인 .80이상이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역시 $\chi^2 = 25500.945$, $p < .001$ 로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자기성찰지능 척도로서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과 요인회전 방식으로는 사각회전(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하여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회전한 결과 고유치

- 4) 문항 총점 간 상관관계수 값이 .30이하인 경우는 한 요인의 관찰변수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박광배, 1999).
- 5) KMO 값이 .80이상이면 우수한 정도이고, .70에서 .80사이이면 보통을 상회하는 정도이고, .60에서 .70사이이면 보통이며, .50에서 .60까지는 부족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허영만, 2001).

표 7. 1차 문항축소 내용

제거기준	제거된 문항
평균 2미만이거나 4초과	없음
표준편차 1미만	없음(모든 문항이 1미만이었으나,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의 결정에 의해 제거하지 않음)
왜도와 첨도 ± 2 이하	없음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03이하	없음

표 8. KMO와 Bartlett's test 검정 결과

구분	측정치
KMO test	.965
Bartlett's Sphericity test	Approx. Chi-Square 25500.945 df 2016 Sig. .000

(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은 10개였고, 전체 누적 설명력은 48.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목적은 데이터의 축소, 즉 변수의 수를 줄이는데 있으므로 나타난 모든 요인을 사용하는 것을 비합리적이다(권오정, 2008a; 노형진, 2003). 따라서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가정한 자기성찰의 구성요인이 8요인이었기 때문에 8요인으로 지정해서 먼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 간 혼입이 되거나 3개 이하의 문항수를 가진 요인이 발생하였다. 최적의 요인수를 찾고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누적분산의 비율 및 고유치가 2에 접근하거나 스크리 검사를 고려할 때 4개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요인 수를 4개로 고정하여 요인구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1)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이거나, 2)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인 불분명한 문항, 3) 문항구성에서 지정한 요인과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문항 등 총 17문항이 제거되어 47문항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인별 문항을 내용의 타당성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발달심리학 박사 3인(성인심리전공)과 자기성찰 향상 프로그램과 현장 적용 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1인이 요인과 문항에 대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요인에 문항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의미가 중복된다고 판단된 11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6문항이 선정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각 요인의 문항 구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요인 1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자각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기이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과 관련이 있어 '자기설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자신의 행동이나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과 관련된 내

표 9. 자기성찰지능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행렬표

(n=805)

요인	문항번호	Factor			
		1	2	3	4
자기이해	54	.708	-.004	-.080	.081
	55	.665	-.091	.056	.015
	19	.660	-.029	.026	.022
	11	.627	.155	-.022	.220
	39	.616	-.014	.166	-.022
	21	.540	-.067	.155	-.069
	28	.504	-.211	.102	-.090
	37	.498	-.062	.319	-.091
	20	.452	-.232	.009	.030
	46	.386	-.243	.145	.061
자기설계	44	-.087	.726	.094	.066
	35	-.005	.685	.114	.012
	26	.107	.672	.099	-.137
	45	.030	.669	.025	.108
	27	.014	.667	.106	-.072
	53	.076	.651	-.108	.220
	18	.194	.534	-.013	.040
	52	.303	.336	-.163	.268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14	.059	.004	.685	.014
	41	.071	-.122	.637	-.072
	33	-.007	-.235	.606	-.133
	5	-.075	.109	.601	.204
	49	.171	.039	.583	.046
	57	.269	-.070	.542	-.145
	23	-.001	-.221	.494	.017
	34	-.003	-.097	.473	.028
	7	.047	.030	.438	.091
	59	.114	-.036	.417	.203
	42	.173	-.234	.352	-.084
	6	.020	-.139	.329	.141
자기반성	4	-.063	-.161	.103	.494
	3	.140	-.024	.122	.493
	13	.211	.071	.211	.404
	62	.233	-.130	-.053	.375
	22	.058	-.038	.287	.341
	48	.121	-.114	.177	.332
고유값		12.314	2.085	2.046	1.482
설명변량(%)		32.651	4.229	4.217	2.538
누적변량(%)		32.651	36.881	41.098	43.636

용으로서 ‘자기반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4요인에 대한 누적설명분산은 43.64%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요인구조와 요인행렬은 표 9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척도의 요인구조의 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수들 간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성찰지능 4요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자기성찰지능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수치를 살펴보면, $CMIN/DF(\chi^2/df)$ 최적치 1~2값이 1.171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지수인 GFI(기초적합치)값은 .939(.9이상), AGFI(조정적합치)가 .909(.9이상), RMR(원소 간 평균차이)이 .025(.05이하)이다. 증분 적합지수인 NFI(표준적합지수)는 .927(.9이상), CFI가 .988(.09이상), TLI는 .985(.09이상)이며 RMSEA⁷⁾(개략화 오차평균)는 .020(.05이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4요인 모형의 적합도 판정결과 모든 지수에서 적합도 값들이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수치는 표 10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준거관련 타당도

개발된 자기성찰지능 척도가 기존의 관련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준거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준거 측정도구로는 1) 한국판 다중지능 측정검사K-HAPI(K-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d Intelligence) 중 자기성찰지능 12 문항을 사용하였고, 2) 한국판 다중지능 검사 K-MIDAS(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중 자기성찰지능 9문항을 가지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확정 모형은 4요인 36문항으로 구성요인은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자기반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이해는 자신의 정서 및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능력을, 자기설계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미래를 위한 목표설정 능력을, 자기조절 및 정서 활용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에 대한 조절 및 활용 능력을, 마지막으로 자기반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행위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 능력을 의미한다.

K-HAPI(한국판 다중지능 측정검사) K-HAPI(K-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d Intelligence)는 Shearer와 Jones(1994)가 개발한 다중지능 측정검사(HAPI)를 우리나라에서 류숙희(1996)가

6) $CMIN/DF$ 은 χ^2/df 로 1~2범위가 최적치이며 2~3이면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적합지이다(김계수, 2004).

7) $RMSEA < .05$ 이면 양호하고 $RMSEA < .08$ 이면 어느 정도 양호하고 $RMSEA > .10$ 이면 채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김계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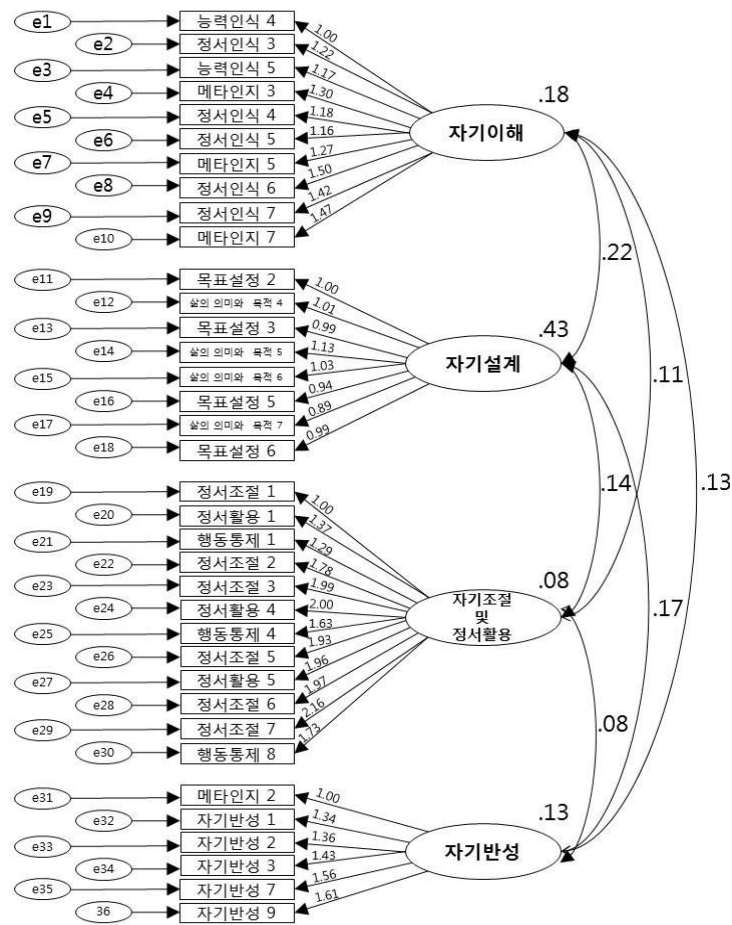


그림 1. 자기성찰지능 4요인 모형

표 10. 자기성찰지능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수치

적합지수		최적 모형	적합도기준 (양호)	4요인 모형	적합도 판정결과
절대적합지수	CMIN/DF	1~2	< 2	1.171	양호
	GFI(기초적합치)	1	> .90	0.939	양호
	AGFI(조정적합치)	1	> .90	0.909	양호
	RMR(원소간 평균차이)	.05이하	< .05	0.025	양호
증분적합지수	NFI(표준적합지수)	1	> .90	0.927	양호
	CFI	1	> .90	0.988	양호
	TLI	1	> .90	0.985	양호
	RMSEA(개략화 오차평균)	.05이하	< .05	0.020	양호

번안·수정하여 개발한 것이다. 다중지능의 하위요인으로서 자기성찰지능의 의미는 자신의 느낌, 욕구, 두려움,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미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K-HAPI는 5점 Likert 척도로 총 108문항이며 그 중 자기성찰지능은 12문항으로 문항번호 97~108번에 실려 있다.

K-MIDAS(한국판 다중지능 검사) Shearer (1995)의 지필식 다중지능검사인 HAPI를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다중지능 검사(MIDAS: Multiple Intelligence Development Assessment Scale)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수정보완한 K-MIDAS(김현진, 1999)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다중지능의 하위요소로서 자기성찰지능을 자신의 느낌, 욕구, 두려움, 자신의 개인사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미래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자연지능을 포함한 8가지 다중지능을 모두 포함하여 모두 1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자기성찰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된 문항은 9문항으로 문항번호 98~106번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성찰지능 척도 전체와 그 하위요인은 K-HAPI, K-MIDAS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r=.539\sim.769$, $p<.001$)를 보임으로써(표 1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기성찰지능 척도는 기존의 자기성찰지능 척도와 상당히 유사함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척도가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자기성찰지능 척도와 타당화 준거변인간 상관 ($n=805$)

요인	K-HAPI	K-MIDAS
자기이해	.703***	.665***
자기설계	.696***	.752***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561***	.608***
자기반성	.583***	.539***
자기성찰지능 전체	.754***	.769***

*** $p < .001$

3. 신뢰도 검증

최종적으로 선정된 36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 문항-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신뢰도를 구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 내용과 신뢰도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었다.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43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4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값은 .889~.746 사이로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는 자기이해 요인의 신뢰도 값이 .889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설계 요인 .879,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요인이 .873으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었다. 자기반성 요인은 .74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이것은 문항의 수가 적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각 영역의 하위요인 구성과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2. 자기성찰지능 요인별 문항내용과 신뢰도 분석결과

(n=805)

번호	문항 내용 (36문항)	요인 부하량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제거시 신뢰도
요인 1. 자기이해 (Cronbach's α = .889)				
54	갑자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	.708	.576	.879
55	나는 내가 하는 생각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	.665	.679	.874
19	나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불쾌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660	.615	.876
11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627	.510	.884
39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616	.647	.876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구분할 수 있다.	.540	.609	.878
28	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다.	.504	.638	.878
37	나는 어떤 일로 인해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다.	.498	.680	.877
20	나는 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452	.600	.881
46	나는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본다.	.386	.668	.880
요인 2. 자기설계 (Cronbach's α = .879)				
44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	.726	.618	.861
35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신념이 있다.	.685	.648	.859
26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672	.643	.860
45	나는 미래를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669	.636	.860
27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667	.603	.865
53	나는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한다.	.651	.611	.862
18	나는 내 미래의 모습이나 직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534	.609	.867
52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회의가 들 때 내가 이 일(공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336	.539	.881
요인 3.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Cronbach's α = .873)				
14	나는 내가 흥분이 되어 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685	.615	.857
41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다.	.637	.639	.857
33	나는 화가 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빨리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606	.614	.859
5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참는다.	.601	.468	.866
49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황에 따라 화를 내야할지 참아야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583	.613	.860

57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통제하고 조절 할 수 있다.	.542	.646	.859
23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침착하게 한다.	.494	.600	.863
34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	.473	.496	.868
7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438	.446	.871
59	나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체를 위해 맞춰줄 수 있다.	.417	.578	.864
42	나는 우울해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352	.589	.866
6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쓴다.	.329	.494	.871
요인 4. 자기반성 (Cronbach's α = .746)				
4	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곤 한다.	.494	.439	.715
3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493	.504	.695
13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의 모습, 생활, 행동, 말들을 돌이켜 볼 때가 있다.	.404	.517	.704
62	일상에 묻혀 바쁘게 생활하다가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 '내가 잘 살고 있나' 하고 되돌아본다.	.375	.471	.724
22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본다.	.341	.511	.707
48	내가 타인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점검해 본다.	.332	.520	.712
전체 36문항 (Cronbach's α = .943)				

표 13.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n=805)

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자기이해	10	54, 55, 19, 11, 39, 21, 28, 37, 20, 47	.889
자기설계	8	44, 35, 26, 45, 27, 53, 18, 52	.879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12	14, 41, 33, 49, 57, 23, 34, 7, 59, 42, 6	.873
자기반성	6	4, 3, 13, 62, 22, 48	.746
전체	36		.943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지능의 단일 요인으로
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자기이해, 자기설계, 자기조절 및 정서
활용, 자기반성의 4요인으로 구성된 총 36문
항의 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지능은 4요인으로 구성된다.

기존 선행 논문 및 척도를 통해 정서인식 및 능력인식, 메타인지, 자기반성, 정서조절, 정서활용, 삶의 의미와 목적, 목표설정의 8요인을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4요인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서인식 및 능력인식 그리고 메타인지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자기이해'라 명명하였고,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목표설정이 하나로 묶여 '자기설계'로 명명하였으며,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묶여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으로 명명하였고, 하나로 묶인 요인은 '자기반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명명은 문용린 등(2003)의 자기성찰지능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조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관리능력 등을 포함한다는 정의와 권오정(2008a)이 자기성찰지능을 자기이해(능력 및 정서인식, 정서활용), 자기조절(상황판단, 충동통제), 자기설계(목표설정, 성취지향)의 3영역 6요인으로 설계한 것에 근거한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지와 김홍주(2012)가 개발한 자기성찰지능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자기반성 요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자기반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성찰지능 구성요인이 밝혀짐으로써 향후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자기성찰지능 척도는 문헌고찰을 통한 정의와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8요인에 근거하여 83

문항의 예비문항이 제작되었으며, 개방형 질문지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 평정을 반영하여 70문항으로 축소하여 예비조사를 위한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15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양호도를 포함한 문항 분석과 예비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쳐 본조사를 위한 총 64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다. 805명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 분석 결과, KMO 값이 .965로 수용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고, 전체 누적 설명력이 48.4%가 확보되고 최종 4요인 36문항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4요인 모형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하게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본 측정도구의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척도인 K-HAPI와 K-MIDA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정적 상관($r=.539\sim.769$, $p<.001$)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가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문항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943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4개 하위 요인별 신뢰도 값은 .889~.746 사이에 놓여있어 신뢰로운 측정도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기성찰지능척도들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성인대상 척도들이 부족한 가운데, 다중지능의 단일한 요인으로서 자기성찰지능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성인의 객관적인 자아성

찰지능을 측정가능하게 하여 성인들이 자아성찰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자아성찰과 관련한 변인을 탐색한다거나 자아성찰향상 프로그램의 적용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의 자기성찰지능에 대한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이론적 고찰이 어려웠다는 점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기성찰지능 점수가 안정적인지를 알아보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자아성찰지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자아개념, 대인관계, 공감능력, 메타인지, 심리적 안녕감 변인 등을 포함한 기타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정순 (2007). Gardner의 인성지능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포럼, 6(1), 1-23.
- 권오정 (2008a). 초등학생용 자기성찰지능척도 개발 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초등교육연구, 21(3), 265-286.
- 권오정 (2008b). 초등학생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주) 데이타 솔루션.
- 김문신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완 (2003). 전자교육 플랫폼의 효용도 평가 도구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양분 (2000). 다중지능발달평가척도. 교육개발, 봄호, 130-133.
- 김용희, 윤주한 (2000).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메타인지 문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수학교육, 39(2), 101-125.
- 김정화 (2010). 이러닝 환경에서 e-튜터의 학지원이 교수실재감과 학습 실재감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관계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진 (1999). 다중지능 측정도구의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은 (2009). 다중지능 이론의 비판적 성찰. 인간발달연구, 16(4), 1-19.
- 김홍주 (2012). 중학생용 자기성찰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형진 (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 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류숙희 (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용린 (1997). 정서지능(EQ)진단검사. 서울: 대교교육과학연구소.
- 문용린 (2004). 지력혁명. 서울: 비즈니스 북스.

-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 (2003). 다중지능과 진로인식 발달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 연구실.
- 문용린, 류숙희, 김현진, 김성봉 (2001). 다중지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중고생을 위한 다중지능 검사 개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 박광배 (1999).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정미 (2003). 청소년의 자기생활관리 프로그램 효과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용국, 김명소, 한영석 (2009). 셀프리더십 척도 타당화 연구: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13-340.
- 양혜주 (2007). 문제중심학습의 수업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타인지 유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 이연수 (2011). 초등학생용 자기성찰 척도(SRS) 개발 및 타당화. 초등도덕교육, 35, 158-188.
- 이은주 (2010). 메타인지를 활용한 직접적 탐구 기능 수업 전략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현 (2011). <꿈>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자기성찰지능 함양.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영 (2011). 공감, 자아존중감, 성격특성과 친사회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종진 (2001). 다중지능사정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연구논총, 17(1), 161-198.
- 하태민 (2009). 심리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뇌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희명 (2011). 과정 드라마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성찰지능에 미치는 영향: arts PROPEL 활용을 사례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영만 (2001). SPSS 10.0 for Windows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황주연 (2011). 자기성찰 척도개발 및 자기관과 자기성찰, 안녕감간의 경로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nthony, M. G., Franklin, J., & Langford, P. (2002). The self-reflection and insight scale: A new measure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0(8), 821-836.
- Armstrong, T. (1994). *Multiple intelligence in the classroom*.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 (1994). *Losing control: How and why people fail at self-regula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iarrochi, J., Forgas, J. P., & Mayer, J. D. (2005). 정서지능. 박재현, 장승민, 권성우(역). 서

- 울: (주)시그마프레스. (원본발간일, 2001).
- Covey, S. R. (2002). *Celebrations: Quilts for cherished family moments*. New York: Plenum.
- Dewey, J. (1933) *How we think*. DC: Hearst and Co.
- Elliot, A.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25-36.
- Frank, V. (1978). *The unheard cry for meaning*. New York: Simon & Schuster.
- Gardner, H. (1983). *Frame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2001). 다중지능: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문용린(역). 서울: 김영사. (원본발간일, 1999).
- Gardner, H. (2004).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 Gardner, H. (2007). 다중지능. 유경재, 문용린(역).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원본발간일, 2006).
- Goleman, D. (1996).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ocke, J. (1924).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ringle-Pattison, Ed.). Oxford: England: The Clarendon Press.
- Maslow, A. H. (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 May, R. (1975). Values, myths and symbol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2, 703-706.
- Mayer, J. D., DiPaolo, M., & Salovey, P. (199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O'Neil, H. F., Jr., & Abedi, J. (199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tate metacognitive inventory: Potential for alternative assessment.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89, 234-245.
- Piaget, J. (1976). *The grasp of concept in the young chi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gers, D.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Seligman, M. E. P. (1990). Why is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In R. E. Ingram (Ed.), *Contemporary psychoanalyt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pp.1-9). New York: Plenum.
- Shearer, C. B. (1995). *The MIDAS; A guide to assessment and education for the multiple intelligences*. Columbus, Ohio: Greydon Press.
- Shearer, C. B. (2002). *The MIDAS student high impact project (S.H.I.P): Building interpersonal intelligences*. New York: Boston University.
- Shearer, C. B., & Jones, J. A. (1994). The validation of the Hillside Assessment of Perceive Intelligences (HAPI): A measure of Howard Gardner's theory of multiple

- intelligences.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pril 4-8.* New Orleans, L. A.
- Skinner, B. F. (1953). *Science and human behavior.* New York: Macmillan.
- Spearman, C. (1923). *The nature of intelligence and principle of cognition.* London: Mac Millian.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ly(Ed.) *Structure equation modeling: Concept, issues and applications*(p.56-75). Newbury Park, CA: Sage.

1 차원고접수 : 2013. 1. 8.

수정원고접수 : 2013. 2. 18.

최종게재결정 : 2013. 3. 6.

The Development of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Adults

An, Che-Yun

Oh, Mi-Kyoung

Dept. of Brain Education,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Intrapersonal intelligence refers to the ability to understand one's own emotions and potential, control oneself and design one's future. It has been seen as being important as it provides a motivating effect to activate other intelligences in Multiple Intelligence and is an important form of intelligence for self-actualization. However,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is insufficient when it comes to measure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dependently because research into intrapersonal intelligence is still in its infancy and research data and evidence in this area remains sca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develop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adul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 First, intrapersonal intelligence consists of the four factors which are self-understanding, self-planning, self-control & utilizing and self-reflection. Second, the four factors and 36 items developed for the scale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Good-fitness of the four factors structure and the 36 items proved to be vali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criterion validation indicated that all four factor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K-HAPI and K-MIDAS. The reliability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above results show, this study into intrapersonal intelligence provides fundamental data to help adults to understand and regulate themselves, design their future and self-actualization. It can also be used as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programs related to intrapersonal intelligence.

Key words :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Scale development